

오늘의 주요기사

2018년 11월 05일 (월)

순서	제 목	매체	카테고리	페이지
1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률 '전국 1위'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올해도 13명	전북일보	사회	1
2	전주대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률 22년째 전국 최고	전북도민일보	사람들	2
3	전주대금융보험학과, 손해사정사시험13명합격	전라일보	사회	3
4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손해사정사 합격률 1위	전민일보	사회	4
5	전주대 손해사정사 합격률 전국1위	전북중앙	사람	5
6	전주대금융보험학과, 손해사정사합격률전국1위	호남제일신문	경제·교육	6
7	전주대 출신 13명,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	전주일보	종합	7
8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손해사정사 합격률 전국 1위	전주매일	경제·사회	8
9	전주대 손해사정사 합격률 1위	전북연합신문	교육	9
10	금융·보험 인재 요람으로 '우뚛'	전북금강일보	문화	10
11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손해사정사 13명 합격	새전북신문	사회	11
12	전주대, 손해사정사 합격률 전국 1위	전라매일	교육&문화...	12
13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제41회 손해사정사 합격률 전국 1위	새만금일보	종합	13
14	전주대, 오는 7일 '세계사와 함께 듣는 클래식 콘서트'	전민일보	사람	14
15	'세계사와 함께 듣는 클래식 콘서트'	전주매일	경제·사회	15
16	세계사와 함께 듣는 클래식 콘서트	전북연합신문	교육	16
17	'역사와 음악의 콜라보' 전주대, 클래식 콘서트	전북금강일보	문화	17

확대비율: 110%

奎北日報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005면 사회 7.2 x 11.3cm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률 '전국 1위'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올해도 13명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학과장 이경재 교수)는 4학년 김선환 학생 등 13명이 제41회 손해사정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4일 밝혔다.

전주대 금융보험학과는 지난해보다 2명 많은 13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보험 관련 학과가 개설된 전국 10여개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합격률을 22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

전주대는 이같은 높은 합격률의 비결로 교수와 동문 선배의 밀착지도와 선후배간 정보 교류, 금융보험 관련 외부 강사들의 특강 등을 꼽고 있다. 높은 합격률 덕에 다른 학과 학생들이 복수전공 신청을 하거나 아예 전과 하는 사례도 있고 방학 중 진행되는 특강을 지역 주민이나 타 대학 학생들이 청강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이 전주대 측의 설명이다.

백세종 기자

확대비율: 110%

전북도민일보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015면 사람들 9.8 x 6.9cm

전주대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률 22년째 전국 최고



이경재 교수

전주대 금융보험학과(학과장 이경재) 학생 13명이 제41회 손해사정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전주대 금융보험학과는 작년보다 2명 많은 13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보험 관련학과가 개설된 전국 10여개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합격률을 22년 연속 보유하고 있다.

이경재 교수는 “학생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확대비율: 120%

全羅日報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005면 사회 12.4 x 5.0cm

전주대 금융보험학과,손해사정사 시험 13명 합격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학생 13명이 '제41회 손해사정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이는 작년보다 2명 많은 숫자며 보험 관련 학과 개설 전국 10여개 대학 가운데 22년 연속 가장 높은 합격률이다.

합격자는 졸업생인 이승규 김지훈 씨, 금

융보험학과 4학년 김선환 이진영 박재정 이민우 서준원 김민수 정철진 장희수 김혜인 학생, 3학년 김용욱 양준혁 학생이다.

비결로는 학과 교수, 동문 선배의 밀착지도와 선후배간 정보 교류를 꼽았다.

/이수화기자·waterflower20@

확대비율: 105%

전민일보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007면 사회 14.0 x 12.2cm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손해사정사 합격률 1위

김선환씨 등 13명 최종 합격 실무중심 맞춤형 교육 성과

전주대는 금융보험학과 학생 13명이 제41회 손해사정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 졸업생 이승규, 김지훈씨와 금융보험학과 4학년 김선환, 이진영, 박재정, 이민우, 서준원, 김민수, 정철진, 장희수, 김혜인 학생이 합격했고 3학년 김용욱, 양준혁 학생도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주대 금융보험학과는 보험 관련학과가 개선된 전국 10여개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합격률을 22년 연속 보유하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학과 교수, 동문 선배들의 밀착지도와 선후배간 정보 교류가 높은 합격률의 비결이다.

특히 학과내 교수를 중심으로 학습 동아

리를 운영해 학기뿐만 아니라 방학 동안에도 손해사정사를 비롯한 금융보험관련 자격증 시험에 대비하고 먼저 합격한 선배들은 22년 동안 쌓아온 합격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한다.

또한 금융보험 관련 외부 강사들의 특강도 높은 합격률에 한몫을 하고 있다.

손해사정사는 사고 이후 손해액과 보험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전문가로서 자격증 취득만으로도 삼성, 현대, 동부 등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금융보험학과 학과장 이경재 교수는“올해에도 학교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학생들이 교수와 선배를 믿고 잘 따라와 줘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봉기자

확대비율: 110%

전북중앙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008면 사람 6.6
x 10.6cm

전주대 손해사정사 합격률 전국1위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가 제41회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합격률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시험에 졸업생 이승규, 김지훈 씨와 금융보험학과 4학년 김선환, 이진영, 박재정, 이민우, 서준원, 김민수, 정철진, 장희수, 김혜인 학생이 합격했고, 3학년인 김용욱, 양준혁 학생도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주대 금융보험학과는 지난해보다 2명 많은 13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보험 관련학과가 개설된 전국 10여개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합격률을 22년 연속 보유하고 있다.

한편 손해사정사는 사고 이후 손해액과 보험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전문가로서 자격증 취득만으로도 삼성, 현대, 동부 등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정병창기자 wooyuchang@

확대비율: 100%

호남제일신문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005면 경제·교육 25.1 x 9.7cm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손해사정사 합격률 전국 1위

전국 보험관련학과 개설대학 중 22년째 합격률 1위

전주대 금융보험학과(학과장 이경재 교수)는 지난 2일 4학년 김선환 학생 등 13명이 제41회 손해사정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 졸업생 이승규, 김지훈 씨와 금융보험학과 4학년 김선환, 이진영, 박재정, 이민우, 서준원, 김민수, 정철진, 장희수, 김혜인 학생이 합격했고 3학년인 김용욱, 양준혁 학생도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주대 금융보험학과는 작년보다 2명 많은 13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보

험 관련학과가 개설된 전국 10여개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합격률을 22년 연속 보유하고 있다. 학과 교수, 동문 선배의 밀착지도와 선후배간 정보 교류가 높은 합격률의 비결이다.

학과 내에 교수를 중심으로 학습 동아리를 운영해 학기뿐만 아니라 방학 동안에도 손해사정사를 비롯한 금융보험관련 자격증 시험에 대비하고 먼저 합격한 선배들은 22년 동안 쌓아온 합격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한다.

금융보험 관련 외부 강사들의 특강

도 높은 합격률의 요인이다.

이런 탓에 다른 학과 학생들이 복수 전공 신청을 하거나 아예 전과하는 사례도 생길 정도다.

또 방학 중 진행되는 특강을 지역 주민이나 타 대학 학생들이 청강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손해사정사는 사고 이후 손해액과 보험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전문가로서 자격증 취득만으로도 삼성, 현대, 동부 등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금융보험학과 학과장 이경재 교수는 “올해에도 학교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학생들이 교수와 선배를 믿고 잘 따라와 줘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학생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금융보험학과는 3년 간 70% 이상의 졸업생이 은행, 보험사 등 금융 관련 기업에 취직하고 있으며 금융·보험 관련 직종에서 취직과 동시에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실무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김지애 기자

확대비율: 100%

전주일보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004면 종합 12.7 x 12.3cm

전주대 출신 13명, 손해사정사 시험 합격

졸업생 2명 · 재학생 11명... 밀착지도 · 정보교류 성과, 합격률 우수

전주대 금융보험학과(학과장 이재경 교수)는 제41회 손해사정사 시험에 13명이 합격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험에 졸업생 이승규, 김지훈 씨와 금융보험학과 김선환, 이진영, 박재정, 이민우, 서준원, 김민수, 정철진, 장희수, 김혜인(4년)이, 김용욱, 양준혁(3년)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주대 금융보험학과는 지난해보다 2명 많은 13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보험 관련학과가 개설된 전국 10여개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합격률을 22년 연속 기록했다.

높은 합격률 비결은 학과 교수, 동문 선배의 밀착지도와 선후배간 정보 교류 덕분이다.

보험학과는 교수를 중심으로 학습 동아리를 운영해 학기뿐만 아니라 방학 동안

안에도 손해사정사를 비롯한 금융보험 관련 자격증 시험에 대비하고, 먼저 합격한 선배들이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한다.

이재경 금융보험학과 학과장은 “올해에도 학교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학생들이 교수와 선배를 믿고 잘 따라와 줘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면서 “학생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금융보험학과는 3년 간 70% 이상의 졸업생이 은행, 보험사 등 금융 관련 기업에 취직하고 있으며, 금융·보험 관련 직종에서 취직과 동시에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실무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고병권 기자

확대비율: 100%

전주매일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005면 경제·사회 11.9 x 9.2cm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손해사정사 합격률 전국 1위

관련 학과 중 22년째 최고 성적

전주대 금융보험학과(학과장 이경재 교수)는 제41회 손해사정사 시험에 13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 졸업생 이승규, 김지훈 씨와 금융보험학과 4학년 김선환, 이진영, 박재정, 이민우, 서준원, 김민수, 정철진, 장희수, 김혜인 학생이 합격했고, 3학년인 김용욱, 양준혁 학생도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주대 금융보험학과는 작년보다 2명 많은 13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보험 관련학과가 개설된 전국 10여개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합격률을 22

년 연속 보유하고 있다.

학과 내에 교수를 중심으로 학습 동아리를 운영해 학기뿐만 아니라 방학 동안에도 손해사정사를 비롯한 금융보험관련 자격증 시험에 대비하고, 먼저 합격한 선배들의 합격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한다. 또한 금융보험 관련 외부 강사들의 특강도 했다.

금융보험학과 학과장 이경재 교수는 “올해도 학교의 전폭적인 지지와 학생들이 교수와 선배를 믿고 잘 따라와 줘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학생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확대비율: 115%

전북연합신문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004면 교
육 6.0 x 14.5cm

전주대 손해사정사 합격률 1위

전주대 금융보험학과(학과장 이경재 교수)는 학생 등 13명이 제41회 손해사정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2명 많은 13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보험 관련 학과가 개설된 전국 10여 개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합격률을 22년 연속 보유하고 있다.

학과 내에 교수를 중심으로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여 학기뿐만 아니라 방학 동안에도 손해사정사를 비롯한 금융보험관련 자격증 시험에 대비하고, 먼저 합격한 선배들은 22년 동안 쌓아온 합격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한다. 금융보험 관련 외부 강사들의 특강도 높은 합격률의 요인이다.

손해사정사는 사고 이후 손해액과 보험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전문가로서 자격증 취득만으로도 삼성, 현대 등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다.

한편, 전주대 금융보험학과는 3년간 70% 이상의 졸업생이 은행, 보험사 등 금융 관련 기업에 취직하고 있으며, 금융·보험 관련 직종에서 취직과 동시에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실무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임종근기자 · jk063@naver.com

확대비율: 100%

전북금강일보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012면 문화 12.3 x 18.5cm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손해사정사 합격률 전국 1위 금융·보험 인재 요람으로 '우뚛'

전주대 금융보험학과(학과장 이경재 교수)는 4학년 김선환 학생 등 13명이 제41회 손해사정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에 졸업생 이승규, 김지훈 씨와 금융보험학과 4학년 김선환, 이진영, 박재정, 이민우, 서준원, 김민수, 정철진, 장희수, 김혜인 학생이 합격했고, 3학년인 김용욱, 양준혁 학생도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주대 금융보험학과는 작년부터 2명 많은 13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보험 관련학과가 개설된 전국 10여개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합격률을 22년 연속 보유하고 있다.

학과 교수, 동문 선배의 밀착지도와 선후배간 정보 교류가 높은 합격률의 비결이다.

학과 내에 교수를 중심으로 학습 동아리를 운영해 학기뿐만 아니라 방학 동안에도 손해사정사를 비롯한 금융보험관련 자격증 시험에 대비하고, 먼저 합격한 선배들은 22년 동안 쌓아온 합격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한다.

금융보험 관련 외부 강사들의 특

강도 높은 합격률의 요인이다.

이런 탓에 다른 학과 학생들이 복수전공 신청을 하거나 아예 전과하는 사례도 생길 정도다.

또 방학 중 진행되는 특강을 지역 주민이나 타 대학 학생들이 청강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손해사정사는 사고 이후 손해액과 보험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전문가로서 자격증 취득만으로도 삼성, 현대, 동부 등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금융보험학과 학과장 이경재 교수는 “올해에도 학교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학생들이 교수와 선배들을 믿고 잘 따라와 줘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학생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금융보험학과는 3년간 70% 이상의 졸업생이 은행, 보험사 등 금융 관련 기업에 취직하고 있으며 금융·보험 관련 직종에서 취직과 동시에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실무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기동취재부 gkg8@dumnet

확대비율: 110%

 새전북신문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005면 사회 7.6 x
11.1cm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손해사정사 13명 합격

전주대 금융보험학과(학과장 이경재 교수)는 제41회 손해사정사 시험에 13명이 합격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국 보험관련학과가 개설된 10개 대학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전주대 금융보험학과는 최근 3년간 졸업생의 70% 이상이 은행, 보험사 등 금융 관련 기업에 취직하는 등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전주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의 경우, 매년 평균 13.1명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다. 보험학과가 개설된 뒤 22년동안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재 교수는 “올해에도 학교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학생들이 교수와 선배를 믿고 잘 따라와 줘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학생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정규 기자

확대비율: 100%

전라매일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005면 교육&문화&체육 11.8 x 19.1cm

전주대, 손해사정사 합격률 전국 1위

금융보험학과, 22년 연속 ↑

전주대가 보험 관련학과가 개설된 전국 10여개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합격률을 22년 연속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대 금융보험학과(학과장 이경재 교수)는 4학년 김선환 학생 등 13명이 제41회 손해사정사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전주대에 따르면 이번 시험에 졸업생 이승규, 김지훈 씨와 금융보험학과 4학년 김선환, 이진영, 박재정, 이민우, 서준원, 김민수, 정철진, 장희수, 김혜인 학생이 합격했고 3학년인 김용욱, 양준혁 학생도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주대 금융보험학과는 작년보다 2명 많은 13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보험 관련학과가 개설된 전국 10여개 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합격률을 22년 연속 보유하고 있다.

전주대는 학과 교수, 동문 선배의 밀착지도와 선후배간 정보 교류가 높은 합격률의 비결이라며 학과 내에 교수를 중심으로 학습 동아리를 운영해 학기뿐만 아니라 방학 동안에도 손해사정사를 비롯한 금융보험관련 자격증 시험에 대비하고 먼저 합격한

선배들은 22년 동안 쌓아온 합격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수한다. 금융보험 관련 외부 강사들의 특강도 높은 합격률의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다른 학과 학생들이 복수전공 신청을 하거나 아예 전과하는 사례도 생길 정도이며 방학 중 진행되는 특강을 지역 주민이나 타 대학 학생들이 청강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사정사는 사고 이후 손해액과 보험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전문가로서 자격증 취득만으로도 삼성, 현대, 동부 등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

금융보험학과 학과장 이경재 교수는 “올해에도 학교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학생들이 교수와 선배를 믿고 잘 따라와 줘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학생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는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대 금융보험학과는 3년간 70% 이상의 졸업생이 은행, 보험사 등 금융 관련 기업에 취직하고 있으며, 금융·보험 관련 직종에서 취직과 동시에 업무 수행이 가능한 실무 중심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염형섭 기자

확대비율: 120%

새만금일보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003면 종합 12.1 x 4.2cm

전주대 금융보험학과 제41회 손해사정사 합격률 전국 1위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가 '제 41회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합격자를 대거 배출했다.

2일 전주대에 따르면 이번 시험

에 이번 시험에 졸업생 이승규·김지훈씨와 금융보험학과 4학년 김선환·이진영·박재정·이민우·서준원·김민수·정철진·장희수·김혜인 학생, 3학년 김용욱·양준혁 학생 등 13명이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양병웅기자/ybw0419@naver.com

확대비율: 100%

전 민 일 보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014면 사람 10.4 x 10.6cm

전주대, 오는 7일 ‘세계사와 함께 듣는 클래식 콘서트’

전주대는 오는 7일 오후 7시 30분부터 전주 문화공간 이룸 아트홀에서 지역주민과 전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사와 함께 듣는 클래식 콘서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역사와 음악을 융합하여 흥미롭고 새로운 콘서트로 풀어낸다. 300여 년 전 활동했던 바흐, 베토벤, 쇼팽 등 천재 작곡가들이 살았던 정치, 경제, 혁명, 전쟁 등의 역사를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내고 그 시대의 클래식을 연주한다.

이를 위해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와 음악학과가 콜라보를 진행한다.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이정욱 교수가 세계사를 설명한 뒤 전주대 음악학과 이주용 교수의 음악사 설명과 함께 학생들의 클래식 연주가 이어진다.

정치 혼란, 전쟁, 혁명 등 치열했던 당시 시대상을 아름다운 클래식으로 승화했던 작곡가의 천재성과 독창성이 이번 공연의 감상 포인트다.

이번 콘서트를 기획하고 음악사 해설을 맡은 음악학과 이주용 교수는 “역사와 음악을 접목해서 관객들이 쉽고 재밌게 역사와 음악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번 콘서트를 준비했다”라며, “클래식이 어울리는 가을밤에 편안하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주회는 전주대 LINC+사업단, 지역사회 산학협력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신청 및 문의는 전주대 음악학과(063-220-2979)로 가능하다. 이재봉기자

확대비율: 100%

전주매일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005면 경제·사회 11.9 x 14.6cm

‘세계사와 함께 듣는 클래식 콘서트’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 · 음악학과 콜라보 공연

전주대는 오는 7일 전주 문화 공간 이룸 아트홀에서 ‘세계사와 함께 듣는 클래식 콘서트’를 진행한다.

300여 년 전 활동했던 바흐, 베토벤, 쇼팽 등 천재 작곡가들이 살았던 정치, 경제, 혁명, 전쟁 등의 역사를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내고 그 시대의 클래식을 연주한다.

이를 위해 다소 이질적일 수 있는 두 학과,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와 음악학과가 콜라보를 진행한다.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이정욱 교수가 세계사를 설명한 뒤 전주대 음악학과 이주용 교수의 음악사 설명과 함께 학생들의 클래식 연주가 이어진다.

음악학과 이주용 교수는 “역사와 음악을 접목해서 관객들이 쉽고 재밌게 역사와 음악에 다



가갈 수 있도록 이번 콘서트를 준비했다”라며, “클래식이 어울리는 가을밤에 편안하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관람 신청 및 문의는 음악학과(063-220-2979)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확대비율: 100%

전북연합신문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004면 교육 11.8 x 14.2cm

세계사와 함께 듣는 클래식 콘서트

전주대, 오는 7일 무대

전주대는 전주 문화공간 이룸아트홀에서 지역주민과 전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사와 함께 듣는 클래식 콘서트'를 오는 7일 진행한다.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역사와 음악을 융합해 흥미롭고 새로운 콘서트로 풀어낸다. 300여 년 전 활동했던 바흐, 베토벤, 쇼팽 등 천재 작곡가들이 살았던 정치, 경제, 혁명, 전쟁 등의 역사를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내고 그 시대의 클래식을 연주한다. 정치 혼란, 전쟁, 혁명 등 치열했던 당시 시대상을 아름다운 클래식으로 승화했던 작곡가의 천재성과 독창성이 이번 공연의 감상 포인트다.

해설을 맡은 음악학과 이주용 교수는 "역사와 음악을 접목해서 쉽고 재밌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클래식이 어울리는



가을밤에 편안하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주회는 전주대 LINC+사업단, 지역사회 산학협력 프로젝트(Growth@Local)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임종근기자 · jk063@naver.com

확대비율: 100%

전북금강일보

2018년 11월 5일 월요일 012

면 문화 6.1 x 18.5cm

‘역사와 음악의 콜라보’

전주대, 클래식 콘서트

전주대는 오는 7일 오후 7시30분부터 전주 문화공간 이룸 아트홀에서 지역주민과 전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사와 함께 듣는 클래식 콘서트’를 진행한다.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역사와 음악을 융합해 흥미롭고 새로운 콘서트로 풀어낸다. 300여 년 전 활동했던 바흐, 베토벤, 쇼팽 등 천재 작곡가들이 살았던 정치, 경제, 혁명, 전쟁 등의 역사를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내고 그 시대의 클래식을 연주한다.

이를 위해 다소 이질적일 수 있는 두 학과,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와 음악학과의 콜라보를 진행한다.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이정욱 교수가 세계사를 설명한 뒤 전주대 음악학과 이주용 교수의 음악사 설명과 함께 학생들의 클래식 연주가 이어진다.

정치 혼란, 전쟁, 혁명 등 치열했던 당시 시대상을 아름다운 클래식으로 승화했던 작곡가의 천재성과 독창성이 이번 공연의 감상 포인트다.

음악학과 이주용 교수는 “역사와 음악을 접목해서 관객들이 쉽고 재밌게 역사와 음악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번 콘서트를 준비했다”며 “클래식이 어울리는 가을밤에 편안하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부 gkg8@dumnet